

# 나주시 “청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 청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만 19~39세 청년 3인 이상 내달 17일까지 모집 역량강화·문화예술·관광홍보·도심 활력 등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나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도전 정신 실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 간 '2021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연·전시·문화행사 등 청년 문화 발굴',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관광·음식·숙박 등 나주 홍보', '청년과 함께하는 도심활력' 등으로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최대 4개 사업 분야에서 대상자 선정을 통해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단 사업 범위가 나주시 관내를 벗어나거나, 동일 사업으로 국가·타 지자체·공공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회적 모임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정당 및 정치인 지지 목적의 모임, 사업의 공공성,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와 더불어 사무실 임대료나 현금성 지출경비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나주시 청년센터(송월동 도계길 6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세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상호 잠재력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년 개소한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청년 지원 정책 발굴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농산업활성화 위한 공동 협력 체제 구축 ‘박차’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담양군은 최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농산업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담양군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 특산품에 대한 품종개발 및 육종시설 개선방안과 농자재 내구성 및 효율성 개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작업 여건 개선 방안, 귀농·귀촌인 유치 및 교육 등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농산업 분야

의 애로사항의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각 기관 집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서로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담양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인접한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농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군, 주택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접수

화순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021년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대상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건축물대장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올해 화순군은 산림청 지정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 “장성 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랑께” 장성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귀농귀촌 1번지’ 장성군이 2021년도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비용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에 사용될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에는 최대 7500만원까지 연리 2% 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요건(▲장성군 전입 전, 도시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미만 ▲만 65세 이하,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를 모두

충족시키는 귀농 세대주다. 농업 경력이 없거나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세대주(재촌 비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읍·면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상 농업 경력 단절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다. 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업이 희망이 되는 부자농촌 건설을 함께할 유능한 귀농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면서 “든든한 창업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지난해 416세대 523명 귀농귀촌인 유치

### 정주의향·이주준비·이주실행·이주정착 4단계 지원 추진

구례군이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정책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21년에는 귀농귀촌 단계를 4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군이 지난해 펼친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결과 416세대 523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했다. 전체 귀농귀촌인 중 귀농비율은 93세대 125명으로 24%, 귀촌은 323세대 398명 76%로 귀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단계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귀농귀촌 단계를 ‘정주의향’, ‘이주준비’, ‘이주실행’, ‘이주정착’ 4단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주의향’ 단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 단계다. 구례군은 이들에게 구례군의 장점을 알리고 각종 지원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이주준비’ 단계는 귀농귀촌을 미리 해보는 단계다. 구례군은 이들에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한다.

‘이주실행’ 단계는 본격적으로 귀농귀촌을 실시하는 단계다. 구례군은 이들을 위해 1년간 구례에서 살며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을 교육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정착’ 단계는 귀농귀촌을 완료한 단계로 구례군은 이들에게 정착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워크숍,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역민과의 융화할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이주준비 단계에서는 일손돕기·영농실습 등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례=박진호기자**

## 천년 신비의 약수 ‘구례고로쇠’ 본격 채취

매년 돌아오는 고로쇠 채취시기가 되면 지리산과 백운산을 끼고 있는 구례 산속의 일상은 바쁘기 그지없다. 구례군 수액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2,000ha이며, 270농가 가 연간 822,244리터를 생산하여 약 26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액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로쇠 수액은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구례 고로쇠 수액은 지리산과 백운산 등 해발 600m~1,000m이상의 높은 고봉 청정지역에서 채취되어, 관절염, 신경통, 비노기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며 당뇨, 고혈압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